



전남 나주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지 사흘째인 11일 오후 전남 나주시 ASF 발병 농가에서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뉴스시스

나주 돼지열병 발병... 양돈 농가 '살얼음판'

예방 차원서 외출·이동 금지... 발생 지역 내 확산 차단 위해 인접 6개 시군구 집중소독

“설이 코앞인데 명절 분위기는커녕 꿈 짝 없이 축사만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전남 나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지 사흘째인 11일 오전, 나주시 봉황면 일대는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ASF 발생 농가 접근을 금지하는 차단선이 곳곳에 설치되고 하얀 방역복을 입은 인원들이 보초를 서면서 삼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방역 요원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역복으로 몸을 감싼 채 눈만 내놓고 있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확산된 ASF가 원망스러운 듯 방역복 사이로 드러난 눈빛에는 피로가 묻어났다. 이들은 이따금 주황색 경광등을 흔들며 접근 차단을 제지하는 한편, 알아볼 수 없는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농가 접근 차단에 분주했다. 돼지 살처분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자리에는 파란색 정화조가 설치됐다. 방역 요원들은 소독 약품을 든 포대를 풀어 주변에 뿌리면서 바이러스 차단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축사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바깥에서는 알 길이 없는 가운데 까마귀 울음소리만이 주변을 메우며 스산한 분위기를 더했다. 양돈 농가 관계자들은 설을 앞두고 날아든 비보에 망연자실할 뿐이다. 최악으로 치닫는 명절 분위기 속 바이러스 유입 우려로 잠시의 외출은 물론, 가족간 만남 또한 불사할 수밖에 없다. 나주 노안면에서 1만여 두에 가까운 돼지를 기르고 있는 축사 주인 A(47)씨는 “바이러스가 발병한 봉황면 뿐만 아니라 나주시 전체 양돈 농가에 사실상의 이동 금지령이 내려진 상황”이라며 “특히 나주에 첫 ASF가 창궐한 만큼 더욱 신경이 곤두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 명절 가족을 못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농가 내 8단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외출을 자제하는 것만이 나주 전체 양돈 농가의 공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부디 무탈하게 ASF 방역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나주시 동강면에서 양돈 농가를 운영 중인 B(50)씨도 “매년 명절이면 이주노동자들도 친구나 가족들을 만나러 광주 또는 타지로 향했지만 올해 나주 양돈 농가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반강제로 격리됐다”며 “특히 이번 바이러스의 유입 추정 경로로 해외에서 들어온 불법 축산물 유통이 지목되는 만큼 이주노동자들의 이동이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설을 바랐는데 바이러스 창궐로 수포가 돼 안타깝고 서럽다”며 “하루 빨리 상황이

진전돼 설 연휴 막바지에라도 가족들을 보고싶다. 설날이 참 서럽다”고 했다. 방역 당국은 이번 ASF의 유전자 타입을 분석한 결과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래된 것으로 파악했다. 발병 경로로는 해외 불법 축산물 또는 수입 기자재를 통한 확산, 철새대 이동 과정에서 묻은 분변 등이 지목되고 있다. 발생 지역 내 확산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와 방역차 등 가용 소독 자원을 총동원해 나주와 인접 6개 시군구 내 돼지농장 255곳과 주요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기동방역기구를 현장에 파견해 살처분과 매몰, 잔존물 처리 등 전반적인 현장 대응을 총괄 관리 중이다.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농장 32곳과 역학적으로 연관된 돼지농장 15곳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역학 관련 차량 5대에 대해서도 세척과 소독을 하고 있다. /기동취재부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초박빙'

통합 선언 후 3차례 여론조사, 2강3중3약-2강4중2약 민형배·김영록 오차범위 내 사투... 득주 없어 '안갯속' 계파·지역·리더메이트 가속화... 빅텐트가 성패 가리나

광주·전남, 전남·광주 통합을 전제로 한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가 초점전 양상을 보이면서 합종연횡을 통한 세력 합치기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현재 특별시장 후보로는 여·야 통틀어 20명 가까운 인사가들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통례상 최대 관심사는 텃밭 광주 더불어민주당 경선으로, 민주당 후보군만 최소 8명에 이르고 있다. 통합특별법 통과 후 4월 초·중순께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두권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에서 살얼음판 경쟁을 이어가는 등 전반적으로 표 분산 현상이 두드러져 경선 판도는 예측불허하다. 통합 선언 후 치러진 3차례 여론조사 시를 종합하면, 지지율 30% 이상의 득주후보가 전무한 상황에서 전반적으로는 '2강3중3약' 내지 '2강4중2약' 구도가 뚜렷하다. 광주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1월30일부터 이틀 간 광주·전남 만 18세 이상 남녀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형배 의원이 22.7%로, 2위 김영록 전남지사(18.1%)와 오차범위 안에서 점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RS, 응답률 7.1,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2.5%포인트, 중앙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이어 신정훈 의원(9.2%), 주철현 의원(6.8%), 강기정 광주시장(6.5%)이 뒤를 이었고, 이개호·이병훈·정준호 후보는 5% 미만에 그쳤다. 광남일보와 KBC광주방송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2~3일 광주·전남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민형배(19.0%), 김영록(18.6%) 두 후보 간 격차가 0.4%포인트에 불과해 오차범위 내 초점전 양상을 보였다. (ARS, 응답률 6.4,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그 뒤를 신정훈(9.2%), 강기정(7.8%), 주철현(6.3%), 이병훈(6.2%) 후보가 추격했고, 이개호·정준호 후보는 5%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KBS광주방송총국의 8-9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흐름은 비슷했다. '양강' 민형배(21%), 김영록(19%) 후보가 오차범위 내 1·2위를, 강기정(9%), 신정훈(8%), 주철현(6%) 후보가 3중을 형성했고, 이개호(4%), 이병훈(4%), 정준호(2%) 후보가 뒤를 이었다. (전화조사권 인터뷰, 응답률 14.1%,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4%포인트, 중앙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전반적으로 부동층이 20%대에 달한 가운데 후보별 학·지·혈연 또는 정치적 거점 지지 기반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오는 '안방 효과'와 연령대별, 지지정당별 표 분산 현상이 뚜렷했다. 1·2위 초박빙에 중위권 후보군이 두텁게 형성되면서 후보간 이합집산이 성패를 좌우할 최대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정 1위 후보가 중·하위권 2~3명, 최소 1~2명만 끌어당겨도 대세를 장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는 까닭이다. 실제 지역 정가에선 민주당 내 친이재명(친명)계와 친정청태(친청)계 간 계파 연대를 비롯, 예초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간 교차 연대, 통합교육감·유력 기초단체장 후보와의 리더메이트도 수면 위·아래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선거구역이 확대되면서 자급과 조적을 고려한 세 합치기나 각종 토론회와 포럼, 공청회 공동개최 등 '품앗이 정치'도 이어지고 있다. 1위 후보가 경선 과반 득표에 실패할 경우 결선 대역전극을 노린 하위권 후보들과의 연대는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정가 관계자는 "선거구역이 확대되고 후보자도 늘면서 민주당 경선에서의 전략적 연대와 '빅 텐트'가 관심사로 떠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판세 변화에 주목하며 조직을 재정비하거나 다각적인 연대, 유력 인사 영입 등이 설 연휴 이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시스

Goheung Spaceship Terminal

제16회 고흥 우주항공축제

2026.5.2.① - 5.5.④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일원

주최/주관 고흥군 고흥군축제위원회

지구문명에서
우주문명으로